

신촌상점가, 암사종합시장, 망원시장 등 로봇·VR 등 ‘스마트상가’로 진화

**중기부-소진공
‘스마트시범상가’ 20곳 선정
사업장 특성맞춰 혁신기술 적용
“비대면·디지털로 경쟁력 제고”**

서울 서대문 신촌상점가, 경기 화성 병점중심상가, 충북 청주 성안길상점가 등 20곳이 ‘스마트시범상가’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들 상점가를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스마트시범상점가로 선정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 보급해 스마트상점 확산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상점이란 QR코드 스캔을 통해 물건이나 음식 등을 주문하고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범상가는 복합형 5곳과 일반형 15곳이다.

복합형 시범상가는 소상공인의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맞춰 VR·AR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 서빙과 조리를 돕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지원

〈선정된 스마트시범상가 20곳〉

복합형상가(5곳)		
서울	서대문구	신촌상점가
경기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충북	청주시	성안길상점가
전북	전주시	전북대 대학로상점가
경남	창원시	창원 시티세븐 상가

일반형상가(15곳)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양천구	신월1동 신영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경기	하남시	덕풍전통시장
	하남시	석바대상점가
충북	제천시	내토 전통시장
	춘천시	춘천 명동 상점가
강원	유성구	봉명동 우산거리상점가
	포항시	구룡포시장
경북	포항시	효자시장
	북구	칠성시장야시장
대구	창원시	창원 명서시장
	사하구	부산사하 샘터상가
부산	광안구	하남2지구 상가

/중소벤처기업부

하는 스마트기술 도입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 시범상가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예약 및 현장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의 도입을 집중 지원한다.

서울에선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도

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양천구 신월 1동 신영시장, 마포구 망원시장이 일반형 시범상가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스마트시범상가 모집엔 복합형 시범상가의 경우 6.6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소상공인 현장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VR·AR, AI, IoT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고, 소진공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시연할 수 있는 스마트상점 모델샵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이 스마트상점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가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우리는 더러워질 용기가 필요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박테리아를 99.9% 박멸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과연 건강에 이로울까. 박테리아 공포를 조장하는 항균제, 탈취제, 세제 광고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매일 몸의 오물을 닦아내고 집안과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이 든 제품을 대량으로 쓰고 버린다. 청결을 위한 인간의 소비 뒤에는 쓰레기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남는다. 우리는 좀 더 더러워질 용기가 필요하다.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생산된 상품은 소비 뒤 ‘쓰레기’ 형태로 남아 사람들에게 복수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수백년간 우리 곁을 맴돌고 하수 정화까지 되지 않는 화학 물질은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돼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

저자는 과도한 항균 물질 사용은 몸에 해롭다고 주장한다. 트리클로산이 대표적인 예다. 이 물질은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한편 하수 정화시설로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한네 튀겔 지음/배영자 옮김/민니

도 분해되지 않아 수생 생물에게 독으로 작용한다. 동물 실험에서는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핸드젤, 물티슈, 스프레이 방향제, 다용도 세척제가 정말 우리 세상에 필요한 물건일까. 저자는 먼지와 세균에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무관심한 것만큼이나 잘못된 반응이라고 지적한다. 대량 소비문화의 ‘청결 사회’가 환경과 건강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 밝히고 극복 방안을 소개한다.

276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절멸의 인류사

사라시나 이사오 지음/이경덕 옮김/부키



인간은 지구를 지배한다. 강한 신체도, 날카로운 이빨도, 몸을 보호해줄 털도 없는 벌거숭이였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700만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 생존했을까. 일본의 분자고생물학자인 저자는 ‘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유약함에서 찾는다. 지난한 절멸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생존전략을 탐구한다.

272쪽. 1만4800원.

협력의 역설

애덤 카헤인 지음/정지현 옮김/메디치미디어



죽도록 싫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진하는 ‘전통적인 협력’은 이제 쓸모없어졌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단편적인 모습을 띠지 않게 됐다. 책은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스트레치 협력’을 제안한다. 여러 개의 팀이 각자의 뗏목에 올라 거친 강을 타고 나아가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192쪽. 1만3000원.

인조인간 프로젝트

권창규 지음/서해문집



자본주의의 최첨단 예술인 광고는 대중매체의 힘을 이용해 기술 발달의 산물인 신상품을 홍보했다. 책에서 다룬 근대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라디오에 광고를 하지도 않았다. 신문과 잡지에 실린 인쇄광고가 당대의 유행과 시대정신을 선도했고, 도안엔 이상적 근대인이 모델로 제시됐다. 결국 한 세기전 광고는 자본주의적 소비와 노동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비자라는 ‘인조인간’으로 만들어냈다.

248쪽. 1만7000원.

공영쇼핑의 상생... ‘착한 선결제’ 1억 돌파

**협력사, 인근 소상공인 등에
자금 유동성 확보 차원 지원**

공영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해 협력사 및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영쇼핑은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 판매대금 및 용역비 선지급, 인근 소상공인·자영업 업소 선결제 등을 진행했다.

‘방송 판매대금 선지급’은 중소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영쇼핑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지급 정책 시행을 계기로 10일 단위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던 것을 1일 단



공영쇼핑 전경, /네이버 로드뷰

위로 바꿨다. 매달 10일, 20일, 말일에 총 세차례 지급해오던 것을 횡수에 상관없이 배송 완료 바로 다음날 수시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대 15일까지 단축되는 판매대금 정산을 통해 협력사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선지급 정책 시행 후 지난 4월 ‘청소 끝판왕 클리너 세트’를 판매한 ㈜자연이 선지급을 신청해 약 7000만원 가량을 수령했다. 해당 협력사는 선지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구매 등의 긴급한 용처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영쇼핑은 이밖에도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결제를 실시하고, 위탁 용역비를 미리 지급하는 등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변 음식점 10곳에 선결제를 진행했고, 방역소독 등의 위탁 용역비도 선지급했다. 앞으로도 사무용품 구매 비용을 조기 집행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선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스마트공장 재직자 연수생 200명 모집

중진공 장기심화과정 1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30일까지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1차 참여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은 스마트공장 이론교육을 기반으로 연수생 주도의 스마트공장 개선 프로젝트와 시범공장 벤치마킹 등을 패키지로 한 교육과정이다. 스마트공장 운영·관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재직자의 실질

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

연수참여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자 200명이다.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업당 2명 이상 모집하고 기업별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연수 참가비는 무료다.

중진공은 데이터분석, 제조자동화, 운영관리전문가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4개월에 걸쳐 160시간 동안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 세부과정은 ▲온라인 이

론교육(48시간)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실습교육(32시간) ▲전문가의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현장 프로젝트(48시간) ▲시범공장 견학(12시간) ▲컨퍼런스(6시간) 등이다.

이번 연수는 중진공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지역인 경기도 안산(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전북 전주(캠텍종합기술원), 경남 창원(부산경남연수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스마트공장 장기심화과정 접수처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수출 중소기업, 화상으로 해외바이어 만나세요”

중기중앙회 ‘화상수출상담실’ 운영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상시적으로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화상수출상담실’을 설치하고, 15일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수출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 누구나 환영하며 온라인 화상상담 솔루션을 활용해 해외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과 기업간 협회 등 온라인 화상상담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전혜숙 무역촉진부장은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

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부와 협력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설 전용 상담실을 구축한만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라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유럽 소부장 강국의 바이어를 매칭하는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일반산업계, 생활소비재, 식품 등 업종별·테마별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